경의중앙선

촬영 대본 · 2026.10.15

S#1. 문산역. 전철 안. 밤.

고요한 문산행 막차 안.
홀로 앉아있는 여고생 서진.
무언가 고민이 많은 듯,
고개를 푹 숙인 채 침울한 얼굴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내 결심한 듯 어디론가 전화를 건다.
두어 번의 신호음이 가고 통화가 연결된다.

지연 어? 왜?

서진 언니 많이 바빠?

지연 (약간 신경질) 어. 오늘 늦는다고 했잖아.

서진 … 말할 게 있어서.

지연 말? 뭔데? 빨리해.

서진 그게…

이내, 수화기 너머 소란스러운 소리와 함께 지연을 부르는 소리 들리면.

지연 지금 가봐야겠다. 문자로 남겨놔. 이따가 볼게!

뚝 끊기는 전화.

서진, 아쉬운 표정으로 한숨을 푹 내쉬고는 메시지창을 켠다.

'오늘 학교에서…'

잠시 멈추더니 다시 지우고, 또다시 무언갈 쓰려다가 지워버린다.

그동안 열차는 마지막 역인 문산역에 정차한다.

방송 열차의 마지막 종점인 문산역에 도착했습니다.
승객 여러분은 모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문이 열렸지만, 서진은 메시지를 무어라 쓸지 여전히 고민 중이다.
이내 고개를 푹 숙이는 서진.

서진　　어떡해.

그 순간, 문이 닫히는 열차.

서진　　어?

서진, 뒤늦게 알아채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나가려 하지만,
이미 열차 문은 닫혀버렸다.

서진　　아이 씨.

이내 열차가 출발한다.
설상가상으로 갑자기 불까지 꺼진다.
순식간에 서늘해진 분위기.
서진, 당황해서 소리친다.

서진　　저기요. 아직 사람 있어요!

하지만, 공허하게 울리는 서진의 목소리.
이내 조종칸이 있는 앞으로 발걸음을 옮기려는 서진.

이내 갑자기 뒤쪽 칸으로 가는 문이 스르륵 열린다.
뒤쪽 칸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감쪽같이 사라져 버린 서진.
열차에 불이 다시 켜지지만,
서진의 흔적은 전혀 없는 텅 빈 열차의 내부.

TITLE IN

〈경의중앙선〉

S#2. 몽타주. 낮과 밤.

짧은 컷들. 거친 기록 영상처럼.

1.지구대. 경찰관에게 서진의 사진을 내미는 지연. 경찰관이 고개를 젓는다.

2.학교 앞. 서진의 친구에게 묻는 지연.

지연 서진이랑 언제 헤어졌어?

친구 그날 밤에요. 문산 가는 막차 탄다고 하고 헤어졌어요.

3.문산역 앞. 기둥에 실종 전단을 붙이는 지연. 전단 속 서진이 웃고 있다.

4.역무실. CCTV 화면을 들여다보는 지연.
화면 속, 종점에 선 막차에서 승객들이 내린다. 서진은 내리지 않는다. 문이 닫히고 열차가 떠난다.

5.무당집 앞. 문 앞에 선 지연.
무당의 신당. 뒷모습. 젊은 남자의 목소리다.

무당 지하철로 가면 볼 수는 있어. 막차에 있어.

S#3. 전철 맨 끝 칸. 밤.

한산한 막차 안.
술에 취해 꾸벅꾸벅 졸고 있는 아저씨, 공부를 마치고 돌아가는 학생만이 보인다.
그들과 거리를 두고 앉은 30대 여자 지연.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듯 초췌한 얼굴에, 질끈 묶은 포니테일에 모자를 눌러쓴 차림이다.
허리에는 바람막이를 묶었고, 운동화를 신었다. 목에는 부적 목걸이.
열차가 문산역에 선다.

방송 열차의 마지막 종점인 문산역에 도착했습니다.
승객 여러분은 모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열차에서 내리는 다른 승객들. 지연은 내리지 않는다.
출입문이 닫히고, 열차가 다시 출발한다. 이내 불이 꺼진다.
지연, 바지 주머니의 지퍼를 열어 핸드폰을 꺼낸다. 주머니 안에 이어폰 케이스가 보인다.
잠금화면에는 회전목마 앞에 선 일곱 살 서진의 사진.
노란 옷을 입고 활짝 웃고 있다.
통화 기록을 열면, 맨 위에 '서진'. 통화 시간은 30초가 안 된다.
지연, 어디론가 전화를 건다.

무당 여보세요?
지연 제 동생, 여기에 진짜 단서가 있는거에요?
무당 이제부터 그곳은 지하철이 아닐 거예요.

지연, 주변을 둘러보면, 창밖의 하늘이 기괴하게 붉게 물들어 있다.

지연 (놀란 채로) 대체... 이게...
무당 부적은 절대 몸에서 떼지 마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뒤 칸으로 가선 안 돼요. (치지직) 무조건 (치지직) 앞으로만.

지연 뒤 칸으로 가면요?

무당 그럼... 그건 안 돼요. 하지 마요.

지연, 자리에서 일어나 앞 칸으로 가는 문 앞에 선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열림 버튼을 누른다.
문턱을 넘는 순간, 뚝 끊기는 전화.

지연 여보세요? 여보세요?

화면을 보면, 꺼져 있는 휴대폰.

S#4. 전철 첫 번째 칸. 밤.

첫 번째 칸으로 들어서는 지연.
불은 꺼져 있고, 창으로 붉은 빛만 들어온다.
이내 들리기 시작하는 빗소리. 창에는 물이 흐르지 않는다.
그때, 지연의 오른편에서 투둑 소리가 난다.
창문에 찍힌 붉은 손바닥 자국.
손끝으로 문질러 보면, 바깥이 아니라 안에서 찍힌 자국이다. 손끝에 피가 묻는다.
그때, 울리는 전화. 전화를 들면 화면이 꺼진다. 검게 꺼진 화면에 반사되어 보이는 사람들.
그런데 지하철 안을 보면 아무도 없다.

지연 뭐야?

이번에 창을 보면, 그대로 서 있는 수십 명의 사람들.

지연 꺄악.

소리친다.

방송 다음 역은 문산, 문산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멈추는 듯 서는 열차. 지연은 문 쪽으로 간다. 멈췄다. 그런데 문이 열리지 않는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지만, 문은 열리지 않는다.

지연 여기요. 저기요.

유리 속 수많은 (악령)사람들이 열차 안에 승차해 있지만
지연이 열차를 보면 사람은 없다. 꺼진 휴대폰을 거울 삼아 다시 보면,
그 순간, 검은 화면에 확 들어차는 것들.

하지만 악령들은 마치 보지 못하는 좀비처럼 지연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지연은 입을 틀어막고 휴대폰으로 악령들의 위치를 확인하며 빈틈을 찾아 이동한다.
칸을 빽빽이 메운 사람들. 통로에 선 사람, 천장에 거꾸로 선 사람.
바로 머리 위에서, 거꾸로 된 얼굴이 지연을 내려다보고 있다.
위를 올려다보면, 천장뿐이다.
창을 보면, 창마다 사람들이 빽빽이 비친다. 전부 이쪽을 보고 있다.
빗소리가 폭우처럼 쏟아진다. 비가 아니라, 손바닥들이 유리를 치는 소리다.
유리 안쪽에 손바닥 자국이 쏟아지듯 찍힌다.
지연, 꺼진 핸드폰을 팔을 뻗어 비스듬히 들고, 화면에 앞쪽 통로를 비춰 보며 내달린다.
화면 속, 앞을 막아서는 얼굴들. 거꾸로 된 머리들 밑으로 몸을 숙이고, 서 있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지나간다.
마지막 구간. 화면 속, 서 있는 사람 둘이 통로 양쪽을 막고 있다.
그 사이 틈 위로, 거꾸로 선 사람의 두 팔이 내려와 있다.
지연, 숨을 참고 그 틈으로 기어간다.
지연, 끝에 다다르자 손끝으로 열림 버튼을 누른다.
문이 열리자, 유리 속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온다.
지연이 문턱을 넘는다. 등 뒤에서 문이 닫히고, 문 유리에 손바닥이 쏟아지듯 찍힌다.
아무것도 넘어오지 못한다.

S#5. 전철 두 번째 칸. 밤.

불이 켜진 칸. 아무도 없다.
그런데 코 고는 소리가 난다. 쌕쌕거리는 숨소리가 여러 겹 겹친다.
둘러봐도 자는 사람은 없다. 소리는 낮게, 바닥에서 난다.
창에도, 꺼진 핸드폰 화면에도 아무것도 비치지 않는다.

지연　　... 여긴 없나.

앞으로 걸음을 옮기는 지연. 몇 걸음 가다가, 발에 뭔가 걸리는 느낌.
내려다보면, 빈 바닥이다.
그때, 옆의 쇠기둥이 눈에 들어온다. 반들반들한 기둥 표면에 바닥이 길게 비친다.
기둥 속 바닥에, 무언가 깔려 있다.
납작한 거미 몸에 길게 빠진 사람 목, 그 끝에 사람 얼굴.
열차가 덜컹할 때마다, 얼굴들이 모두 같은 때에 꾸벅 고개를 떨군다. 덜컹, 꾸벅. 덜컹, 꾸벅.
한두 마리가 아니다. 바닥 전체에 깔려 있다.
숨을 멈추는 지연.
위에 매달린 철봉에 매달려 무릎을 가슴까지 접는 지연.
봉과 손잡이를 번갈아 잡으며 건너기 시작한다.
문 구간 한가운데. 열차가 덜컹 흔들리며, 열차의 불이 꺼진다.
봉에도 아무것도 비치지 않는다. 어둠 속, 바닥 여기저기서 사각사각 기어 다니는 소리.
지연, 한 손으로 매달린 채 다른 손으로 주머니 지퍼를 연다.

핸드폰 손전등을 켜 바닥을 비춘다.
맨눈에는 빈 바닥에 둥근 불빛뿐이다. 그런데 손에 쥔 봉에 비친 그 불빛 안에는, 위를 올려다보는 얼굴들이 빼곡하다.
불이 다시 들어온다. 지연, 핸드폰을 넣고 지퍼를 잠근다.
다음 출입문 앞. 잡은 손잡이 고리가 앞으로 쏠리며 한 손이 빠진다.
접었던 다리가 풀리고, 왼쪽 신발이 바닥에 닿는다. 톡.
칸 안이 조용하다.
이내 사방에서 몰려오는 소리. 다다다닥.
봉에 비친 바닥, 발이 닿은 자리로 얼굴들이 몰려든다. 마치 좀비들처럼..
감았던 눈을 전부 뜨고 있다.
열차가 덜컹해도, 고개를 떨구는 얼굴은 하나도 없다.
지연, 무릎을 당기지만 신발이 올라오지 않는다.
다른 발로 뒤꿈치를 밀어 신발을 벗으면,
신발이 혼자 끌려가 좌석 밑으로 사라진다.

방송　　손잡이를 꼭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빠졌던 손으로 다시 봉을 잡는 지연. 가까스로 건넌다. 한쪽 발의 신발은 벗겨진 채로.
사라졌다.
마지막 좌석에 올라서서, 손을 뻗어 열림 버튼을 누르면,
문이 열리는 소리에 우왕좌왕하는 바닥의 악령들.
지연, 그 틈에 세 번째 칸으로 넘어간다.

S#6. 전철 세 번째 칸. 밤.

고개를 들면, 한낮처럼 눈부신 칸.
밤인데 창으로 한낮의 햇빛이 쏟아져 들어온다.
창밖으로 무언가 지나가는 듯, 그림자가 일정한 간격으로 바닥과 좌석을 쓸고 지나간다.
칸 전체가 꽃으로 덮여 있다. 좌석과 기둥마다 흰 꽃과 노란 꽃이 감겨 있다.
손잡이 고리마다 색색 리본이 묶여 있고, 봄의 꽃으로 가득한 놀이공원 같은 풍경이다.
앞 칸 쪽 끝, 마지막 광고판 옆 출입문은 노란 꽃과 흰 꽃으로 엮은 화환이 아치처럼 감싸고 있다.
광고판마다 크레파스 그림. 노란 옷 아이와 언니가 손잡고 회전목마 앞에 선 그림. 언니가 혼자 걸어가는 그림. 아이 혼자 우는 그림.
회전목마 음악이 맑고 밝게 흐른다.

안내 방송 소리.

방송　　일곱 살 서진 어린이의 보호자를 찾습니다. 서진 어린이는 노란 옷을 입고 있습니다.
보호자께서는 미아보호소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굳어 버리는 지연. 10년 전, 놀이공원에서 들었던 방송이다.
앞 칸 쪽 끝, 서진이 서 있다.

교복 차림에, 머리에는 노란 꽃 화관을 썼다. 잠금화면 속 노란 옷과 같은 색이다.
길 잃은 아이 같은 얼굴. 눈이 젖어 있다.

지연　　서진아!

리본 천막 아래를 지나, 서진 앞에 달려가 멈춰 서는 지연.

서진　　언니. 왜 나 버리고 도망갔어?
지연　　(당황해 서 있다) …
서진　　놀이공원에서. 엄마 아빠도 없는 집에서 혼자서 나 감당할 자신 없다면서.
방송　　보호자가 오지 않았습니다. 보호자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일곱 살 서진 어린이의 보호자를 계속 찾고 있습니다. (소리 들리고)

버티던 지연, 무너지듯 울음을 터뜨린다.

지연　　미안해. 그때 너 버리고 가려고 그랬어. 내가 미안해.

서진의 입술이 떨린다. 참으려 하지만 얼굴이 일그러진다.
이내 울음을 터뜨리는 서진.

서진　　(울면서) 언니, 괜찮아. 나 괜찮아.
서진, 두 손으로 지연의 손목을 감싸 쥔다.

서진　　이제 같이 가자.

서진이 지연의 손목을 잡고 걷기 시작한다. 뒤 칸으로 가는 문 쪽이다.

회전목마 가락을 작게 흥얼거리는 서진.

홀린 듯 따라가는 지연.

뒤 칸으로 가는 문이 가까워진다. 유리 너머는 어둡다. 그 유리에 두 사람이 비친다.
유리 속, 지연의 손목을 쥐고 있는 것은 서진이 아니다.
노란 화관을 쓴 검은 형체. 교복을 걸쳤고, 관절이 제멋대로 꺾여 있다. 뒤로 거뭇한 꼬리 같은 것이 끌린다.

앞을 보면, 서진의 뒷모습. 다시 유리를 보면, 악령의 모습이다.
걸음을 멈추는 지연. 흥얼거림도 멈춘다.

서진　　(돌아보지 않고) 언니, 왜?

지연, 잡힌 손목을 비틀어 뿌리친다.
돌아서서 앞 칸 쪽으로 뛰는 지연.
등 뒤에서, 서진의 목소리가 갈라진다.

서진　　(갈라진 목소리로) 넌 언니도 아냐! 네가 놓았어! 날 버렸지?

앞으로 뛰어오는 지연, 그 뒤의 서진.

뚝. 서진의 손목이 꺾인다.
뚝. 팔꿈치가 반대쪽으로 꺾인다.
뚝. 어깨가 내려앉고, 목이 오른쪽으로 꺾인다.
뚝. 무릎이 뒤로 꺾이며 바닥에 쓰러진다.

햇빛 아래, 꺾이는 몸. 음악은 맑고 밝은 그대로다. 맑은 날씨 속 더 기괴한 모습.

쓰러진 그것이 꺾인 팔다리로 바닥을 짚고 몸을 일으킨다.
그리고 지연을 앞질러 기어 와, 앞 칸으로 가는 문 앞을 막는다. 빠르다.

그것이 지연의 목걸이 줄을 낚아챈다. 줄이 끊어지고, 부적이 바닥에 떨어진다.
그때, 도착음이 울린다. 맑고 밝은 도착 음악.

열차가 선다.

그런데 출입문이 열리자마자 닫힌다. 철컥. 빠른 속도로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한다.
다시 열리고, 철컥. 철컥철컥철컥.
출입문이 쉬지 않고 열렸다 닫혔다 한다. 화환이 흔들려 꽃잎이 쏟아진다.
그것이 지연에게 달려든다.

리본이 한꺼번에 당겨져, 칸 전체의 손잡이가 앞쪽부터 차례로 끌려 내려온다.
지연, 몸을 피하며 그것을 열린 출입문 쪽으로 밀친다.

철컥! 닫히는 문에 그것의 목이 낀다.
몸은 문밖에, 얼굴은 문 안에. 서진의 얼굴이다. 화관도, 눈물 자국도 그대로다.
문이 철컥거릴 때마다 꽃잎이 떨어져 눈물 자국에 달라붙는다.

서진　　(기괴한 악령의 형상으로 변하며) 언니, 아파.

멈칫하는 지연.

철컥! 철컥!　　문이 목을 조를 때마다, 서진의 얼굴이 검게 물든다.
살갗이 검게 갈라지고, 눈과 입이 검은 구멍이 된다.

서진이 아니다. 검은 악령이다.

지연　　으아악!

마지막 철컥과 함께 문이 끝까지 닫히고, 목이 끊긴다.
화관을 쓴 검은 머리가 꽃 한 무더기와 같이 칸 안 바닥에 떨어진다.
흰 꽃잎에 검은 피가 튄다.
회전목마 음악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맑고 밝게 이어진다.

방송　(역 도착음) 이번 역은... 이번 역은... (점차 굵은 남자 목소리가 된다)

출입문이 열린다.

서진 (소리)　언니.
화들짝 놀라 돌아보면, 뒤 칸으로 가는 문. 유리 너머는 어둡다. 그 속에 보이는 진짜 서진.

서진 (소리)　언니, 여기야.

그때, 울리는 지연의 전화.

지연은 받지 않는다. 전화는 계속 울린다.

서진 (소리)　이리 와.

지연,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는다.
급박한 무당의 목소리.

무당　지연 씨! 괜찮아요? 무사해요? 이제 내려요 빨리!

하지만, 미동도 없는 지연.

지연　서진이 죽지 않았을 수도 있죠?

지연, 뒤 칸으로 가는 문을 빤히 바라본다.

무당, 다급하게

무당　안 돼요! 일단 지연 씨는 살아야죠! 지금 내려야 해요. 지금 아니면 못 내려요.
방송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이 천천히 닫히기 시작한다.

지연, 닫히는 출입문을 본다. 그리고 뒤 칸으로 가는 문을 본다.

서진 (소리)　언니...
갈등하던 지연, 뒤 칸으로 가는 문 앞으로 걸어간다.

지연　도와줘서 고마웠어요.

무당　그만둬요! 미친 짓이에요!
지연　이번엔... 그냥 두고 갈 순 없어요.

지연, 전화를 끊는다. 곧바로 다시 울리는 전화. 지연은 받지 않는다.
버튼을 눌러 문을 열고, 잠시 망설이다가 뒤 칸으로 한 걸음 내딛는 지연.
이전의 서진이 그랬던 것과 같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다.
울리던 전화 소리도 뚝 끊긴다.텅 빈 열차.
이내 문이 닫히고, 출발한다.

끝